

사회 : 교육

명지대 건축대학 졸업생들, 국제 공모전 대상·APEC 회담장 설계

중앙일보 | 입력 2025.11.06 10:20



강성원 졸업생 사진

명지대학교(총장 임연수) 건축대학 졸업생들이 국내외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명지대 건축 교육의 우수성과 국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공간디자인전공 이지수 졸업생(2021년 졸업)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건축 공모전인 ‘YAC(Young Architects Competitions)’의 ‘2025 Moramanga Church’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프리츠커상 수상자를 포함한 세계적 건축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국제 공모전으로, 전 세계 신진 건축가들의 등용문으로 꼽힌다. 이지수 졸업생은 현재 일본의 대표적 건축사무소 Kengo Kuma & Associates 한국 지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 중이다.

또한 건축대학 강성원 졸업생(1998학번)은 2025 APEC 한미정상회담의 중심 무대인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내 ‘천년미소관’을 설계해 큰 주목을 받았다. ‘천년미소관’은 전통 한옥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목조 건축물로, 정상회담 기간 주요 외교 행사가 열린 공간이다. 이번 설계를 통해 강성원 건축사는 한국전통건축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세계 무대에 알리며, 건축가로서의 탁월한 역량을 입증했다.



명지대학교 건축대학은 국내 최초로 5년제 건축학 전문 학위 과정을 공인받은 교육기관으로, 학문적 깊이와 실무 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건축 인재를 양성해 왔다. 특히 전통건축전공을 신설해 한국 전통 건축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국내외 각종 공모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나혜 인턴기자 kim.nahye1@joongang.co.kr



The JoongAng **Plus**

어쩌다 42.195km



“최승표” 불리자 도파민 터졌다 제마서 ‘응원뽕’ 맞자 생긴 일



32km 지점서 “아 지옥이다” 이 훈련 부족해서 퍼졌다



‘마라톤 전설’ 킵초게 러닝화 딱 한번 신고 당근에 판 이유

⚡ 1분 만에 더 쉽게 이해하기

- Q.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졸업생들이 최근 어떤 좋은 소식을 전했나요?
- Q. 졸업생들이 수상한 공모전이나 설계한 건축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 Q. 명지대학교 건축대학이 이렇게 뛰어난 인재를 배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요?
- Q. 이번 졸업생들의 성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학교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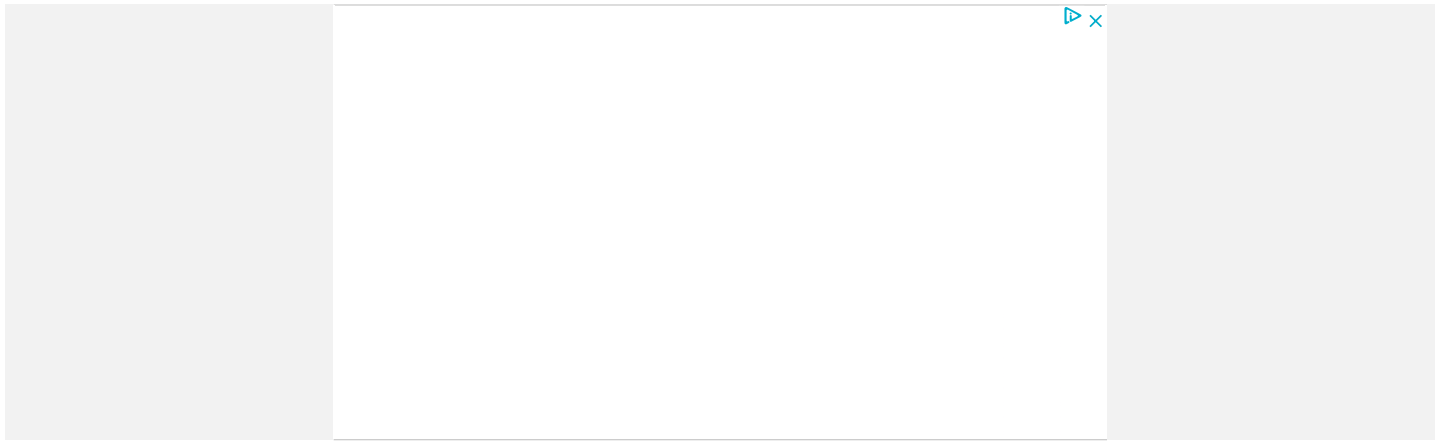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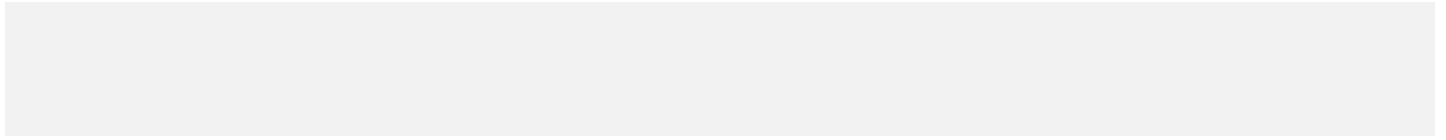
건축대학

명지대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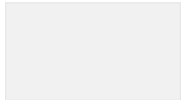
건축대학 졸업생들

건축대학 강성원



함께 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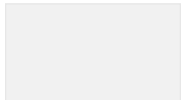
휴온스바이오파마, 충청북도 '고용우수기업' 선정



2025.11.06 10:10



아이더-지파운데이션, 해외 취약계층 지원 물품 기부 협약



2025.11.0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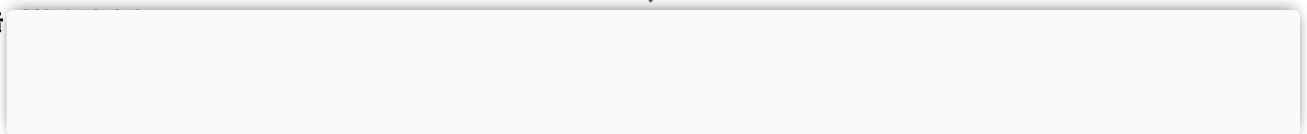


2025 대전펫페어, 14일 개막

2025.11.06 09:00



당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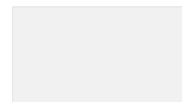


TV 앞서 쫓아도 “잘생긴 남자”...트럼프 사로잡은 게이 장관 PLUS



Innovation Lab >

아트 앤 패션 트렌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스포츠



라이프



피플



스페셜



로그인

전체 서비스

고객센터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청소년 보호정책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우) 03909 | 전화: 02-751-5114 | 등록번호: 서울 아
01013 | 등록일자: 2009.11.2 | 발행인: 박장희 | 편집인: 고현곤

사업자명: 중앙일보(주) | 사업자등록번호: 110-81-00999 | 대표자명: 박장희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20-서울마포-3802

Copyright by JoongAng Ilbo Co., Ltd. All Rights Reserved

